

페트병으로 만든 티셔츠·숄더백 어때요?

빈폴·TNGT 친환경제품 잇달아 출시
레코드는 자투리 천으로 셔츠 만들어
프리메라 '지속가능 종이 패키지' 선포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의 '비사이를 피케 티셔츠'.



LF TNGT와 플리츠마마가 협업한 숄더백,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의 '지속가능한 종이 패키지 세트' (왼쪽부터 시계방향).

패션·뷰티업계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consumer)'를 겨냥한 친환경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패션업계는 친환경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은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해 재생 가공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든 '비사이클 피케 티셔츠'를 선보였다. 냉감 효과가 있는 아이스 코튼 원사로 제작해 시원하고 쾌적한 착장감이 특징이다. 박남영 빈폴 사업부장(상무)은 "지속가능 브랜드를 추구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친환경적 시스템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코오롱FnC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는 '리나노 라인'을 확장한다. 리나노 라인에 레코드 컬렉션을 제작하고 남

은 자투리 천, 단추, 지퍼 등의 부자재를 티셔츠와 셔츠 등에 적용한 캐주얼 라인으로 에코백 티셔츠가 대표 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날씨와 생활

1일(월)

서울	30/0	인천	30/0	수원	30/0
☀️	16 24	☀️	16 21	☀️	17 24
춘천	60/0	강릉	0/0	청주	30/0
☁️	17 26	☀️	19 28	☀️	18 27
대전	20/10	전주	20/10	광주	20/10
☀️	18 27	☀️	18 26	☀️	18 28
대구	20/10	울산	20/20	부산	20/20
☀️	18 30	☀️	17 28	☀️	18 24
창원	20/20	제주	3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17 27	☀️	19 24	☀️	최저 최고 최고기온°C

☀️ 해돋이 05:12 해질 19:48 🌙 달돋음 14:29 달질 02:20

산 날씨

북한산	☀️	16/26	내장산	☀️	17/25
설악산	☀️	18/28	무등산	☀️	17/28
오대산	☀️	17/25	주왕산	☀️	16/27
속리산	☀️	16/26	지리산	☀️	17/29
계룡산	☀️	17/27	한라산	☀️	18/23

바다 날씨

인천중도	☀️	16/21	안면도 꽃지	☀️	17/25
제주도	☀️	16/23	변산반도	☀️	18/24
경포대	☀️	19/23	거문도	☀️	16/26
속초	☀️	17/27	해운대	☀️	18/24
대전	☀️	17/26	제주도	☀️	19/24

미세먼지

서울	30	좋음	대전	26	좋음
부산	19	좋음	울산	26	좋음
대구	24	좋음	경기	30	좋음
인천	24	좋음	강원	18	좋음
광주	25	좋음	충북	26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340호

발행인 이민철 편집인 이충선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사모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경제산업부장 양영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기온 1도 오르면 ‘얼음컵’ 3만 개 더 팔린다”

(GS25)

편의점업계 벌써 ‘얼음 전성’
야구공 크기 이색얼음 출시
청포도 등 과일맛 새 트렌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얼음컵 판매가 늘면서 편의점 업계에 얼음 전쟁이 발발했다.

GS25의 5월 1~25일 얼음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얼음컵 3만 개가 더 팔렸고, 240g의 빅사이즈가 185g 일반컵보다 많이 팔렸다는 게 GS25 측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가 내놓은 승부수는 이색 얼

음이다. GS25는 ‘유어스빅볼아이스컵’을 출시했다. 야구공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지름 70mm 얼음 한 개가 투명 컵에 담긴 제품이다. 23도 상온에서 완전히 녹는 데까지 일반 얼음컵보다 70분이 더 걸린다. 진하게 즐기는 음료, 하이볼, 위스키 등을 오랜 시간 차갑게 유지해준다.

CU는 청포도, 수박, 칼라만시 맛 얼음이 담긴 과일 컵얼음을 선보였다. 과즙을 함유한 얼음이 담겨 있어 취향에 따라 소주, 사이다, 탄산수 등을 부어 먹으면 된다. 음료를 섞지 않고 얼음만 먹으면 오도독 씹히는 시원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아이스크림처럼 즐길 수 있다. 송경화



GS25의 ‘유어스빅볼아이스컵’.

CU 음용식품팀 상품기획자는 “초여름 날씨가 일찍 시작된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얼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애경산업 ‘AK러버 크리에이터’ 모집

애경산업이 7월 5일까지 온라인 서포터즈 ‘AK러버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AK러버 회원 중 화장품 및 생활용품에 관심이 많고 SNS 채널을 운영 중인 2040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 제품 홍보,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제품 품평회 및 설문조사 참여 등 마케팅·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월 1회 미션 완료 시 10만 원 상당의 애경산업 신제품을 제공하며 미션 우수자에게는 추가 상품을 지급한다. 정정욱 기자

대한항공,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

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탑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위탁 수하물이 잘 실렸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다. 스카이패스 회원 중 대한항공 모바일 앱 설치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해외 공항 출발편도 순차적으로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아시아나, 수익성 개선위해 전세기·화물수송 집중

전세기 45회, 1만1609명 수송
4월 화물 총매출 106% 증가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항공산업의 위기 속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세기 운영 확대와 화물수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29일과 30일 이틀

동안 4회의 전세기를 운항해 중국 광저우로 가는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40여 명을 포함해 84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을 수송했다. 이에 앞서 3월13일과 4월23일에는 베트남 번돈공항으로 향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과 LG디스플레이 및 LG전자 엔지니어 226명을 각각 수송했다. 4월30일 터키행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144명을 수송했다. 또한 재외국민과 해외 체류객의 국내 수송을 위한 전세기도

운영해 총 29회에 걸쳐 국민 7875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운항한 국내 기업용 전세기와 재외국민용 전세기는 45회, 1만1609명에 달한다.

여객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늘었다. IT제품 수송이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61%, 의류 27% 증가하는 등 화물 총매출이 106% 증가했다. 5월에는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료용품 수송이 100% 가량 증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nhu@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힘찬 하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힘들다.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소망 많다.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허무한 마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차일피일.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해·번개.
결단력을 갖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급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 쪽이 유리해진다. 오늘은 장성이 망신을 만난 날이다. 장성과 망신 관계는 오행은 같은 데 음양이 다르다. 서로 비슷해 실수한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무리한 일을 추진하려 하는 것보다 현재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뭘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미혼자는 외외의 연인이 출현하여 혼담이 성사 되었다. 오늘은 역마다.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오늘은 뭘가 파격적이고 개혁신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여성의 경우 남자 움직여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서류는 잘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신경 쓰라.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움직여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불이탄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일의 시작에 고난이 따르며 자식걱정 있었다. 오늘은 망신살에 원진살이다. 망신살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격정이 생길 수 있다.	힘이 넘치는 기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왕성한 의욕을 억제하여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은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외롭다.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진눈깨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겨우 해결.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가시밭길.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우왕좌왕.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적으로는 허점이 있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사업의 시작단계이므로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낮은 자세로 임하라. 오늘은 돼지날이다. 말은 돼지날을 맞이하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하다. 운세는 좋으면 먼 곳과의 거래가 성사되고, 자칫하면 협력, 신용의 중대가 예상된다. 해외여행의 찬스, 해외무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다. 오늘은 양이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화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화제는 덮고 가리고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기운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이득도 없는 일을, 벼슬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라. 원숭이가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망신살이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오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선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때때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될 것이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기회이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육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음주 가부로 흥겨운 반면 고생이 따르겠고 급전적인 면에서는 수입이 많아지나 지출도 많이 따르겠다. 지나친 향락으로 방탕하기 쉬우며 쓸데없는 다툼이나 금전 낭비, 애정의 실패, 이성관계의 문제 등이 일어나기 쉽다. 오늘은 검살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속아 비싼 값에 구입하거나 보증을 잘못서는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신축, 이전 등은 다음 기회를 활용하라. 오늘은 돼지날이다. 돼지가 돼지를 만났으니 잘났다고 경평하는 형상이다. 오늘은 비견의 날이다.